

이은운씨
너는 어디서 와서...

'선사들의 화두' 밥알 씹듯...

윤재근 교수
'어두울 때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의 화두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선의 맛을 아무나 잡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사들이 남겨 놓은 화두를 밥알로 여기고 꼭꼭 씹다 보면 망상과 욕심이 녹아버림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이은운씨(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펴낸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자작나무 펴)와 윤재근교수(한양대 국문학)의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라>(문학수첩 펴) 두 권의 책에는 선사들의 화두가 두 눈을 부릅뜬 채 욕심에 찌든 우리에게 자유의 몸이 되라고 일갈한다.

한 학인이 양기방회선사(992~1049)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세발 당나귀가 발목을 돌려 절뚝절뚝 걸어간다. "바로 그것이요 말입니까?" "호남의 장로다"(너는 어디서 와서...)중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가 속인이 선미(禪味)를 안다면 이미 속인이 아닌 것을. 그래도 부단히 접하다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고 사된 생각을 물리치는 힘도 가져다 준다. 세발 나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불성을 가르킨다. 그리고 자성 또한 이와 같이 공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하다고 이 화두는 일깨운다.

한 스님이 대광스님(837~903)에게 물었다. "재를 울리며 고맙다고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대광스님이 춤을 추자. 스님이 절을 올리니 대광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보고 절을 했느냐" 이번에는 스님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대광스님은 말했다. "요 여우같은 놈이"(어두울 때는...)중

거칠 것이 없는 세계이자 불탑문자의 세계. 화두가 그렇다. 언어의 길은 끊겼

으나 마음의 번뇌와 욕심의 겹대기를 쫓아 깨뜨리려는 불호령이 숨어있다. 그래서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이내 화살을 맞는다. 남이 흘린 '침'이나 받아 먹어서는 도에 이를 수 없다는 깨우침. 이 두 권의 책은 이렇게 어려운 화두를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석경선사 등 37인 선사들의 삶을 간략히 조명하면서 그들의 유명한 화두를 펼쳐 보인다. 화두 하나하나를 둘러싼 저자의 접근이 선의 역사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라>는 먼저 세상은 이야기를 예세이로 스케치하고, 뒤에 이와 관련해 설봉스님 등의 50개 화두를 떠올렸다. 화두는 온갖 근심과 욕심을 단번에 요절내는 방향이라는 저자의 생각이 책을 관통한다.

한명우 기자



세상사 스케치한후
50선사 문답 수록

화두 접근 저자 시각
선의 역사 이해 도움

해의신간

생각보다 쉬워요



공허한 교리의 나열보다는 실용적인 수행을 담고있는 <생각보다 쉬워요: 행복을 향한 불교의 방편>(It's Easier Than You Think: The Buddhist Way to Happiness)은 고등학교 교사인 실비아 보르스타인(S.Boorstein)이 전통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지혜를 일상의 일화를 토대로 서술해 놓은 것이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을 청소년들에게 제시한다. Harper San Francisco 펴. 145쪽. ISBN 0062512943

까마귀의 지혜

<까마귀의 지혜(Wisdom of the Crows and Other Buddhist Tales)>는 5~7세의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유머, 깨달음 그리고 사후(死後) 세계까지 선(禪) 우화와 삽화로 배울 수 있는 책. 저자는 동화작가 초드진(S.Chodzin). 80여개의 생생한 칼라 화보는 선화(禪畫) 작가로 유명한 매리 카메론(Marie Cameron)이 그렸다. Tricycle 펴. 90쪽. ISBN 1883672686

영어로 이야기하는 불교 Q&A

영문 불교입문서(영어로 이야기하는 불교 Q&A)가 일본에서 발간됐다. 질문과 답변식의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초 불교용어 및 교리를 영어의 특색을 살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등 서구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불교의식이나 미신적 요소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다. 강담사(講談社) 펴 2백40쪽.

'산에는 꽃이 피네' 읽노라면

깨우침의 풍경소리 들리네

법정스님 법문 류시화 시인 책으로

청빈과 무소유의 법문이 시인을 만나 꽃을 피웠다. 그 꽃에는 음악이 있고 어머니 품속 같은 따스함이 있으며, '향기로운 삶'의 내음을 풍겨낸다.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펴)에는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화주)의 말과 법문이 때로는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비 온 뒤의 험한 돌줄기처럼, 때로는 대숲에

검허하게 내리는 싸락눈처럼 그렇게 흐르고 내린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감싸고 있는 '종교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깨우침의 소리로 들린다.

그 깨우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풉풉한 흙내를



◇법정스님

◇류시화씨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색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곧 산문 시처럼 느껴진다. 자연 속에서 흥

만된 삶과 거거서 체험되는 마음의 풍경을 탁월하게 그려 보인 <무소유>(서 있는 사람들) 등 법정스님이 쓴 여러 권의 수상록과는 또다른 맛이다.

그러나 참맛은 스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리고 부자가 되는 일 못지 않게 참인생을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스님의 말과 말 사이에 하나의 문장을 넣고 한 줄씩 여백을 띄워 놓았다. 그 말을 배경에 놓인 침묵의 세계가 여백을 휘돈다. 하나의 맑은 풍경소리처럼. <우>

■윤구병 수필집 '잡초는 없다'

농사통해 얻은 지혜와 행복

나이 된 고개를 넘어서 15년 동안 재직했던 철학교수직을 버리고 전북 번산 운산리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불자 교수 윤구병씨(55).

<잡초는 없다>(보리 펴)는 그가 번산에 내려온 뒤 '실용학교'와 '번산공동체'를 일구면서 겪고 느낀 일들을 잔잔하게 쓴 것이다. 아무도 버림받지 않은 삶터를 일구면서 어려움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필이라 가볍게 읽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위안을 준다.

1장에는 주로 교육과 관련한 글. 2장에는 실용학교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 3장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생각을 묶었다. 4장은 번산에 내려온 뒤 계속 써 온 번산일기를 소개했으며, 5장에는 공동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힌 '생명을 살리는 농업' 등 2편의 글이 실려있다.

책 제목 '잡초가 없다'는 그가 농사 지으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처음 농사지으며 잡초와의 전쟁을 벌이다 잡초들도 이름이 있고 쓸모가 있다는 착안해 이 풀들을 발효시켜 '백초효소'를 만들었다. 번산공동체는 백초효소 뿐만 아니라 감초차 된장 등

잡초는 없다

을 만들어 먹거리로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듯 생활 속의 지혜와 서로 도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학교보다는 일터가 더 좋은 배울터임을 일깨운다. 남들이 선망하는 세속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공동체 삶을 사는 윤구병씨는 외친다. "구구단 외는 대신 들판으로 나가자."

혜정정사가 쉽게 쓴
'밀교강좌' 출간

밀교종단인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사서실장 혜정정사가 밀교를 쉽게 설명한 <밀교강좌>(출판시대 펴)를 펴냈다.

불(佛)에는 법신분, 보신분, 화신분의 삼신분이 있으며, 교(敎)에는 밀교와 현교 두 가지가 있다. 밀교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며, 부처님의 진언을 따른다.

이 책은 '밀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육자진언인 '옴마니 반메'와 밀교의 독특한 수행법인 삼밀관행(三密觀行) 등 밀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브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3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한 자	세종출판사
4	참선교육	현 당	수선출판사
5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펠	여시아문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7	열화인전	진 경	화산문화
8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윤청재	서울출판사
9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10	불교입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전국 법사 연합회 총회 공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현장포교 하시는 법사님들을 모시고 전국법사 연합회 창립총회를 공고 하오니 법사 여러분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1998년 6월 30일 오후 7시
- 장소 : 송현클럽 (한국일보 13층)
- 대상 : ① 불교대학 운영법사
② 일선포교원 운영법사
③ 현장을 포교하는 일반법사

* 문의 : ☎ 02)732-1206

◆ 법사 5대 현장 ◆

1. 우리 법사들은 이 시대에 맞는 대승불교 운동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현한다.
2.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폭 넓은 포교를 위해 법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자각한다.
3. 우리 법사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바르게 전달키 위해 올바른 지도자 상을 확립한다.
4.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한국불교의 개혁운동을 통하여 불교 교단의 발전을 이룩한다.
5. 우리 법사들은 국민이 필요한 불교, 사회가 요구되는 불교를 만들어 간다.

한국불교 전국 법사 연합회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丙光海譯



494쪽
값 20,000원

명학(命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행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 관심을 두어 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을 만들어 내는 그릇된 책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있어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葉翁의 書에서

통신판매
● 조흥은행 - 436-04-0548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속립 - 047-11-12095-316
예금주 서잔배

도서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 (3층)
전화 (02) 387-8429 전송 (02) 357-7493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내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는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 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서울: 지경정사 02)651-3880 • 부산: 보문사 051)523-5262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전기 지음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출판사: 지경정사 전화: 3474-3521(영일부) 팩스: 3474-3524